

출 제 개 요

2015학년도 경희대학교 인문·체능계 수시 논술고사는 총 두 문제를 출제하였다. 고등학교 학력 수준에 맞추어 범교과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력, 논리적·분석적 추론 능력, 비판 능력 등 종합적 사고 및 논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.

이번 논술문제는 ‘삶의 태도’를 주제로 삼아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길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해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인문학적 소양과 지식을 통해 발휘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. 시와 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제시문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삶의 태도를 분석하여 그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였다. 이번 논술고사에서는 지난해와 유사한 패턴으로 총 2문제를 출제하였으며, 수험생이 파악한 문제의식을 어느 정도 논리 정연하게 서술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.

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질문명의 풍요 속에서 급격한 발전을 이룩해 왔지만, 우리의 삶은 과연 이전보다 행복해졌다고 할 수 있는가?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빈곤감을 느끼는 것은 왜인가?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? ‘풍요 속의 빈곤’이라는 문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.

이에 본 논술문제는 총 6개의 제시문을 통해 시대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와 다양한 삶의 방식을 되짚어 보고 있다. 제시문 [가]는 생의 철학자로 유명한 스페인의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명저 『대중의 반역』에서 가져왔다. 여기에서 저자는 시대적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. 이 글에서 저자는 모든 시대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에 비교해서 우열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각 시대가 지닌 고유의 가치를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. 제시문 [나]는 역사이론서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 E.H. 카의 『역사란 무엇인가』에서 가져왔다. 여기에서 저자는 오늘날 인간의 잠재 능력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생물학적인 면에서 별 차이는 없지만, 과거 세대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한다. 즉, 인간은 한 세대에서 학습된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 효과적으로 전수함으로써 사회 진보의 기초를 이루어 왔다는 것이다.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제시문 [가]는 각 시대가 지니는 고유의 가치에 주목한 반면, 제시문 [나]는 진보적인 관점에서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.

제시문 [다]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글이다. 여기에서 저자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위해 무자비하게 숲을 훼손하는 사냥꾼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. 사냥꾼은 당장의 사냥감을 얻는 데 급급해 숲의 먼 미래를 걱정할 겨를이 없으며, 아예 걱정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. 이 사냥꾼은 바로 우리 각자의 모습이며, 우리 사회를 투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. 제시문 [라]는 『고등학교 국어 I』 교과서에 실려 있는 정호승 시인의 「슬픔이 기쁨에게」라는 시이다. 이 시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이기적인 세태를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. 여기에서 저자는 소외된 자들의 슬픔과 연대하여 물질적 성취를 추구하는 사회가 야기하는 몰인정한 삶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. 제시문 [마]도 『고등학교 문학』 교과서에 실려 있는 박민규의 「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」의 일부이다. 이 글은 물질적 가치와 경쟁을 강요하는 현대 사회의 이면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다. 삶 그 자체를 즐기는 소박한 이들의 일상은 성과 중심의 치열한 경쟁사회의 모습을 성찰하는 아름다운 삶이기도 하다. 제시문 [바]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『오래된 미래』에서 가져왔다. 이 글에서 저자는 고대문화가 살아 숨쉬는 라다크에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 사회가 걸어온 산업문화의 길이 반드시 행복한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

사실을 깨닫고 다양한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.

<논제 I>은 제시문 [가]와 [나]의 내용을 요약하고, 요지를 비교하는 것으로 문헌 독해력과 내용 이해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. 특히 제시문 [가]는 논리 전개상 반전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.

<논제 II>는 제시문 [바]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시문 [다], [라], [마]에 보이는 다양한 삶의 태도를 설명하는 것이다. 인간 사회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삶의 태도를 인문학적인 시각에서 고민해 보도록 한 것이다.

<제시문 출처>

제시문 [가] : 오르테가 이 가세트(사회사상연구회 옮김), 『대중의 반역-현대 대중사회의 문명사적 고찰』, 한마음사, 1995.

제시문 [나] : E.H. 카(김택현 옮김), 『역사란 무엇인가』, 까치, 1997.

제시문 [다] : 지그문트 바우만(한상석 옮김), 『모두스 비벤디-유동하는 세계의 지옥과 유토피아』, 후마니타스, 2010.

제시문 [라] : 정호승, 「슬픔이 기쁨에게」, 『고1국어(상)』, 금성출판사, 2011.

제시문 [마] : 박민규, 「삼미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 클럽」, 『고등학교 문학 II』, 교학도서, 2011.

제시문 [바] :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(양희승 옮김), 『오래된 미래』, 중앙북스, 2007.